

재산 헌납으로 주목받는 전설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

주장환 |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본지에서 연재하고 있는 주장환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의 「인류의 CEO, 이것이 다르다」는 태초의 인류가 역경을 극복하고 이 땅에 자리잡은 독특한 경영이론에서부터 처칠, 케네디, 주원장, 카네기, 세종대왕 등 인류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추출하여 오늘날 우리 기업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CEO관을 제시해주고 있다.



명리학에서는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하나는 근검절약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재물을 스스로 이겨내야 할 (炮)대상으로 본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돈을 안쓰고 절약하여 모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상에 베풀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식신생재(緜贖嗥財: 베푸는 기질이 재물을 낳는다)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를 베풀면 열개가 돌아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보다 타인을 더 위한다. 바로 이런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 최근 재산을 헌납하여 주목을 끌고 있는 버크셔 헤더웨이 회장 겸 CEO인 워런 버핏이 아닌가 한다.

워런 버핏은 그의 별명 '오마하의 현인'이 아깝지 않을 인물이다. 미국 경제전문 격주간지 포천은 워

런 버핏을 '미국 제1의 파워 경제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돈으로만 따지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의 재산이 워런 버핏 보다 많다. 그러나 포천지는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라는 영광을 게이츠 회장이 아닌 워런 버핏에게 돌렸다. 빌게이츠가 그에게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을 뿐 아니라 재산의 사회 환원이란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것일까? 워런 버핏이 재산의 85%인 370억 달러 어치 주식을 5개 자선단체에 기부키로 했다는 소식은 한줄기 빛 같은 것이었다. 우선은 빌 게이츠에 이은 세계 두 번째 부자가 역대 기부액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내기로 했다는 것이 못사람의 관심을 끈다. 하지만 그를 더 큰 인물로 보게 만드는 부분은 자신의 세 자녀와 작고

워런 버핏은 자식들에게 늘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자신의 몫은 자신이 해결하라는 것이다.

한 아내를 위해 만든 4개 자선단체에는 60억 달러만 기부하고 310억 달러는 빌 게이츠 부부가 운영하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주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만든 재단을 키우기보다 그보다 훌륭하고 큰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여기에다 더욱 아름다운 모습은 그의 세 자녀들이다. 뉴욕 타임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 아버지에게 그 자녀"라고 전했다. 신문은



수지(52), 하워드(51), 피터(48) 등 세 자녀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태도가 여느 부잣집 자식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워런 버핏은 자식들에게 늘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자신의 몫은 자신이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는 위대한 CEO들이 자식을 양육하는 흔한 방법 중 하나다. 이런 아버지의 생각에 자식들은 큰 유산을 기대하지 않았으며 어린 시절은 보통 가정같이 평범했다. 남보다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치스럽지도 않았다. 큰딸인 수지는 어렸을 때 밤마다 아버지

가 요람을 흔들어주며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라는 노래를 불러줬다고 기억했다. 이들은 모두 대학에 입학했으나 졸업은 누구도 하지 못했다. 가정경제학을 수학한 수지는 졸업 직전 월급 525달러의 사무직에 취업한다며 학업을 포기했다. "그때만 해도

그 직장이 최고인 줄 알았다"며 "지금 운영하는 재단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뜨개질이나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웃었다. 약 100만 평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하워드는 빈민 생활을 주로 찍는 사진작가로도 활동

하고 있으며, 피터는 뉴 에이지 음악가다. 세 사람은 현재 각자 사회복지재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앞으로 10억 달러씩 더 받아 재단활동을 거기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뉴욕 타임스는 "이들이 아동 조기 교육,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 북미 원주민 지원 활동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자식 농사까지 잘 지은 워런 버핏은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돈을 버는 일만큼은 천부적인 감각을 타고 난 듯하다, 8살에 증권 중개인이던 아버지가 쓴 주식시장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란 나와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칭찬하고 싶은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을 눈여겨 보았다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에 대한 책을 읽으며 주식에 대한 개념을 파악했다. 11살 때에는 증권회사 객장에서 시세판을 적는 일을 하기도 했으며 ‘시티서비스’사의 주식을 처음으로 매입하여 감각을 길렀다. 웬만한 아이들 같으면 아직 콧물이나 흘리고 있었을 때다. 13살 때 신문배달을 해서 번 돈으로 25달러짜리 중고 핀볼 게임기를 이발소에 설치해서 금방 게임기를 7대로 늘렸고 일주일에 50달러를 벌어들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뿐만 아니다. 그는 동업도 할 줄 아는 천부적인 투자자였다. 친구들로부터 돈을 긁어모아 1934년형 롤스로이스를 350달러에 임대해서 하루 35달러씩 임대 수입을 얻었다. 그리하여 그는 고등학교 졸업하던 16살에 6천 달러를 모았다. 25살에 투자 펀드를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투자회사를 차리고 순수 주식투자만으로 인생을 바꿔 갔다.

워런 버핏은 미국 서부 네브래스카주의 작은 도시 오마하의 회색 벽돌집에서 48년째 살고 있다. 1958년 고향에서 3만1500달러를 주고 산 집이다. 그는 아침이면 동네를 산책하며 신문을 사서 읽고 식사 때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즐긴다. 집에서 시간이 남으면 미식축구 TV중계를 보거나 인터넷으로 카드

게임을 즐긴다. 오래된 중고 자동차를 직접 몰고 다니고, 12달러짜리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는다. 성품이 대단히 소탈하고, 검소하며 절약이 몸에 밴 구두쇠다.

워런버핏은 말한다. “좋은 집에 사는 것과 좋은 차를 타는 그런 것에는 관심 없다. 내 관심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잘 경영해 주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뿐이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머리가 그리 좋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IQ는 자동차의 마력 같아서 400마력인 자동차가 100마력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보다는 200마력인 자동차를 잘 운영하여 최대치로 끌어 올려 100% 발휘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그는 성공에 대해 별난 철학을 가

지고 있지 않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워런 버핏의 정의는 이렇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란 게 나와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사고나 습관 등에서 남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약간만 연습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칭찬하고 싶은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을 눈여겨보았다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반대로 타인의 습관이나 행동 가운데 비난받



“성공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워렌버핏은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역시 눈여겨보았다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성공에 무슨 요령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부분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투자 기법은 간단하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는 이길 확률 없으면 단돈 1달러도 걸지 않는다. 1990년 어느 날 워런 버핏은 한 미국 기업 CEO와 골프를 쳤다. 그 CEO가 워런 버핏에게 “이번 홀에서 당신이 2달러를 걸고 티샷을 해 홀인원을 하면 내가 1만 달러를 주겠다”며 내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워런 버핏은 “그렇게 확률이 낮은 도박은 안한다”며 거절했다. 무안해진 CEO가 “그렇게 부자면서 2달러 갖고 뭘 그렇게 벌벌 떠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2달러로 투기를 하는 사람은 1만 달러를 손에 쥐어줘도 마찬가지로 투기를 합니다. 이길 확률이 없는데 요행을 바라는 것은 투기꾼이나 할 짓이지 투자자가 할 일이 아니지요.”

그는 ‘대박을 노린 투기’를 끔찍이 싫어했다. 저

평가된 좋은 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평범한 원칙만이 돈을 버는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신념으로 삼았다. 이 점 우리 개미투자자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그는 1965년 오마하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사를 설립했다. 그런데 버크셔는

지난해까지 38년 동안 연간 투자 수익률이 50%를 넘은 적이 한 번밖에 없다. 몇 십배의 대박을 터트리기는 커녕 1년에 원금이 갑절로 불어난 해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주식투자로 세계 제2의 부자가 됐다. 바로 ‘돈을 잃지 않는다’는 투자 원칙을 항상 지켰기 때문이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밝히는 투자 철학은 두 가지인데 재미있다. 첫째, 돈을 잃지 않는다. 둘째, 첫째항을 항상 지킨다. 그는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심지어

적금 하나를 가입하든 이해

되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았다. 어느 해 워런 버핏은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를 따라온 13세 중학생이 워런 버핏에게 물었다. “성공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잠깐 뜬음들이던 워런 버핏은 이렇게 답했다. “사랑 받고 싶



그의 충고는 안이한 자세로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항상 뭔가 새롭게 준비하고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

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성공 이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모인 주주 여러분께 사랑 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의 성공철학 이면에는 돈만 아는 사업가적 기질 만 아니라 인간을 사랑 하고 존중하는 박애정신 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 었다.

워런 버핏은 비즈니스 2.0이라는 잡지가 인생 의 철학, 좌우명, 성공의 비결(the secrets of their success)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생각할 즈음에, 다음날 신문 1면에 그 일이 기사화되어 다른 사람들이 읽기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그 일을 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시도할 것입니다.”

그의 충고는 안이한 자세로 성공할 수 없음을 보



여준다. 항상 뭔가 새롭게 준비하고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

워런 버핏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일갈한다.

“나는 많이 읽는다. 내가 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나는 대략 감을 잡고 있다.”

워런 버핏의 독서량은 보통 사람 보다 5배나 많다고 한다. 주식투자의 달인인 존 템플턴도 자신을 ‘살아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 세상

에 책을 통해 읽는 것만큼 돈이 적게 들고 효율성이 높은 투자 방법은 별로 없다. 읽는다는 것은 직접 나서서 고생하며 경험하지 않아도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뛰어난 CEO가 되고 싶다면 당장 책을 옆구리에 끼어라. ㉠

주장환

님은 서울신문사(스포츠투서울), 세계일보를 거쳐 파 이낸셜뉴스 문화부장, 국제부장, 유통부장 등을 역 임한 후 현재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언론연구원, 캠브리지대학을 연수하였으며 충효예실천운동본부 전문위원, 한국비디오프로페셔널협회고문, 언론민주언론실천위원회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대학원평생교육원, 삼성, GS문화원 등에서 「신문을 통한 우리 경제 엿보기」, 「문학의 이해-소설과 나」, 「레

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하는 NIE / 논술여행」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논리강의』, 『논술이라고?, 너 딱걸렸어』, 『노벨문학상 소프 트 1,2』, 『과학퍼즐』 (문화체육부 선정 추천도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식 논술陣법 NIE』, 『로즈여사에게 배우는 특별한 자녀양육법 26』 등과 장 편소설 『그 바닷가 헛간은 따스했다』, 『사비카』, 『겨울새 물살털기』, 시집 『내 마음 속에 사랑의 집 한 채』, 번역서 『독불장군처럼 살아라』, 『오사마 빈라덴』, 『사랑을 주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등이 있습니다.